

원단에 색상 무늬를 부여하는 방법

T셔츠는 프린트된 색상 무늬가 승부의 세계이다. 프린트로 색상 무늬를 나타내는 색재료로는 염료와 안료가 있다. 옷감의 프린트에는 염료가 사용되는 일이 많지만, T셔츠에는 안료가 잘 이용된다. 안료는 염료와 같이 섬유에 스며들어 염색되지 않는다. 색이 있는 미세한 분말이기 때문에 접착제와 혼입하여 그것을 원단에 부착하여 색상 무늬를 나타낸다. 부착된 원단을 고열로 처리하면 접착제가 녹아서 원단에 고착된다. 이러한 방법 등으로 대부분의 원단에 색상 무늬를 부여할 수 있다.

그 외에 염색공정에서 대량의 물을 사용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입지는 자유롭고 염색 설비도 간단하고 공정도 짧다. 그리고 적은 비용으로 간단히 프린트할 수 있다. 안료 프린트의 어려운 점은 색상 무늬를 나타내고 있는 곳이 약간 딱딱한 태가 되는 점이다. 또 하나는 드라이클리닝에 약한 점이다. 이것은 접착제로 합성수지를 사용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합성수지는 드라이클리닝 용제에 약하다. 그렇다면 세탁을 한다고 하는데, 그것만으로는 문제 해결이 되지 않는다. 또 하나의 약점으로는 문지르거나 마찰에 따라 섬유에 부착되어 있는 안료의 일부가 탈락한다. 색상이 묻은 곳에 갈라짐 등이 발생하기도 한다. 금 · 은박을 붙인 듯한 것이라든가 부풀어 오른 고무와 같은 감으로 색상 무늬를 나타내고 있는 것(발포수지 프린트라고 한다)에 대하여도 같다고 할 수 있다. 싼값의 옷이기 때문에 튼튼함보다도 재미를 제일로 하여 즐기는 것이라 할 수 있다.